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I. 백장의 불씨

백장 회해(百丈懷海, 720~814)에게는 30여인의 제자가 있으나, 그중 위산 영우(蔚山靈祐, 771~853)와 황벽 회운(黃檗希運, ?~850)이 드러났다. 위산은 백장정규를 최초로 실천하고 총림을 형성하여, 1500명이 넘는 대중을 이끈 선문의 대 존속이다. 그리고 제자 양산 혜적과 더불어 위양종을 성립시켰다. 5가 7종의 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총림이다.

영우는 대소승의 계율을 두루 섭렵하고 23세 때 강서지방으로 행각하여 백장을 참문하였다. 백장은 영우를 보고 대승 법기임을 간파하고 입실을 허락하였다. 어느 날 스승 백장이 영우에게 물었다. "옆에 선 사람은 누구인가?" "영우입니다."

"화로에 불이 남아 있는지 헤쳐 보게." (汝撥爐中有火否) 영우가 화로를 뒤적거리려 보았지만, 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이 없습니다."

백장이 일어나서 목소 불을 헤쳐 작은 불씨를 찾아들고서 말했다.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말끝에 영우가 깨

달음을 얻고 절을 하면서 사해하였다. (師發悟禮謝)

이에 백장이 진중하게 말하였다. "이는 잠시의 지름길일 뿐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성을 보려거든 반드시 시절과 인연을 관찰하라' 하였으니 시

불이 남아 있는지 헤쳐보게 불성을 보려거든 시절·인연을 관찰하라 "불을 찾아내니 재는 죽지 않았네"

절이 이르게 되면 미혹했던 이가 문득 깨달은 것과 같고 한 번 잊은 번뇌망상을 영영 기억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일세.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기를 '깨달음은 깨닫지 못하고 갈아 본래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하신 것이네. 이렇듯 허망한 법인과 성인들의 마음이 없는 本來心法이 원

래 스스로 갖추어 구족해 있으니 이제 이미 네가 그러한 터이니 스스로 잘 護持하여라." (『전등록』 권9 「담주위산영우선사」)

백장의 가르침은 일체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세심하고 면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최대한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 불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곳, 사랑 분별이 멈추는 大用의 세계. 끝없이 움직이는 행동의 세계. 일체의 제2차적 定相화된 관념의 세계를 넘어 바로 활활발발한 참나의 세계를 체험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힘써 실천실수하므로 시절 인연이 닿도록, 그 시절인연을 여시하게 투시해야 함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할

본래 갖추고 있던 스스로의 빛이며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이 아님을 설한다. 후대의 한 선객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화로 속을 한가로이 한 번 헤쳐서 (等閒一撥紅爐裏) 별풍 같은 불을 찾아내니 재는 죽지 않았네 (舉火如星灰不死) 잡히는 대로 들어 올린 잠깐 사이에 (信手拈來瞬目間) 불씨가 얼마 안 되는 줄 비로소 알았네 (始知佛法無多子) - 지비자(『선문염송』 권9권 355칙 「有火」)

위의 계승 1행과 2행에서 풍겨오는 담담함과 예사로움은, 우리를 한층 가라앉히며 더욱 장엄한 적요세계로 몰아간다. 무엇이 이리도 당당함을 넘어서 저 밑바닥까지 평범하게 하는가. 2행에서 '눈동자에 불이 반짝이게 하는 별풍 같은 불'. 이 불은 우리 자신의 영롱한 불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나 단지 타오르는 불의 씨앗을 보지 못하고 잿더미를 볼 뿐이니, 우리는 잿더미이다. 잿더미 역시 불씨와 바람을 만나면 타오르는 불이 된다. 이럴 때 4행에서 지비자가 노래하듯이 "불씨가 얼마 안 되는 줄 비로소 알았네" (始知佛法無多子)로 된다. 사실 佛法은 不法이다. 얼마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니, 오직 그렇게 알면 그 뿐이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이 시집에는 가격표가 없다. 시집 간이나 뒤표지에 값을 인쇄하지 않은 시집이라는 말이다. 작년 7월 말 스님을 뵈러갔다가 바로 출간된 이 시집을 받았다. 스님은 시집 속표지에 '설악산 落僧 霧山'이라는 서명을 해 주었다.

설악산은 스님이 주로 주석하는 절이 있는 곳이고, 낙승은 타락한 중이라는 뜻이다. 스님은 대화중에 천진하게도 자신이 낙승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한다. 무산은 그의 법명이다. 그의 법호는 萬巖이고, 자호는 雪嶽이다.

조오현은 그의 필명이다. 시집 맨 뒤에 자신을 '현재 설악산 산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어느 잡지에 발표할 시 약력란에 자신을 '노동

망기가 있는 노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방문 앞에 경향의 문사들이 성시를 이룬다.

1932년 생인 스님은 어려서 절집에 소머슴으로 들어가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무학이나 영명하였던 그는 1968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여 수십 년 간 시조를 써온 시조시단의 원로이다. 주변에서 내어준 그의 이름이 저자로 박힌 시조집과 『벽암록』 등 번역서와 산문도 몇 권 있다. 그간 발표한 시조 145편을 문도들이 모아 만든 이 시조집은 편집자가 일일이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불교에 소양이 적은 대중들도 읽기에 편하다.

설악 시조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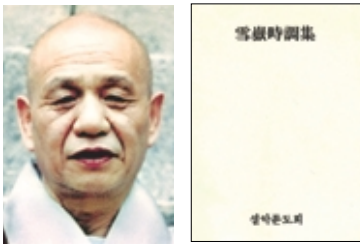
주요인 | 설악문도회 편찬

어느 상업출판사에서 내려던 것을 스님이 뵈어와 인쇄소 골목에 가서 싸게 인쇄했다고 한다.

시집 표지는 아무런 디자인이 없이 시집 제목과 시집을 모은 설악문도회 이름만 박았다. 디자인이 스님의 성품처럼 깨끗하거나 간명하기도 하고, 무

디자인의 디자인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표도 없고 디자인도 없는 이 시집을 이 난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속어와 한자, 절집 말을 시 창작에 거침없이 사용한 그의 시에서 선적 향취와 향기가 가득 묻어난다. 창작자가 회주를 역임했던 설악산 신흥사에 딸린 내원암 암자인 무설전 벽화를 보고 착안한 발상이 기발하고 재미있는 시를 한 편만 맛보자.



내원암 무설전 벽화가 그랬나

황새 한 마리 눈 먼 잉어를 물고

그 화공이 돌아오기를 목을 꼬고 있더군요.

- 무설전 · 4, 전문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중진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던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하며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 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 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어렵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하시고 있지만 정중함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대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진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지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화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사찰음식의 모든 것

● 솔잎차, 솔잎식혜

솔잎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생식하며 선방에서 정진하셨던 비룡 스님입니다. 제 나이 15살 때 제주도 한라산 천황사에 계시던 스님이십니다. 생솔잎가루와 날콩가루 그리고 솔가지 속껍질을 그늘에 말려서 드시던 스님은 양 불이 항상 밝고 스름한 것이 집에서 갖 깨어난 어린이

솔잎은 고혈압이나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팔다리 저림, 불면증, 중풍, 신경쇠약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솔잎의 주요 성분은 엽록소와 비타민A, 비타민C 인데 이는 혈액을 정화하고 괴혈병을 예방합니다. 엽록소는 혈액 생산이나 육아발육에 좋으며 특히 솔잎에 포함된 옥시프르디산은 세포를 젊어지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솔잎을 약술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을 진정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마비를 풀어주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사찰에서는 솔잎, 송피, 송진을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써 왔습니다. 그중 솔잎차와 솔잎식혜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솔잎식혜는 정초 신도님들이 불공을 드릴 때 올린 마지막이 많이 모이자, 이를 다 먹을 수 없어 식혜로 만들어 두고 먹었던 유서 깊은 사찰음식입니다. ■ 정산 스님(선촌 대법)

고혈압 불면증 등에 효험 옥시프르디산 노화 방지

이 같았습니다. 맑은 눈과 잡티 하나 없는 살결. 월정사 선방에서 98세의 나이로 열반하실 때까지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옛 부터 솔잎은 장기간 생식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며 힘이 나고 한머리가 가벼워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서 '신선(神仙)식품'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솔잎식혜



솔잎차 재료: 솔잎, 생강, 배, 설탕

- 1. 솔잎을 씻어 물기를 뺀다.
2. 배와 생강은 곱게 잘라서 얇게 저민다.
3. 물을 끓인 후 설탕으로 좋아하는 당도를 맞춘 후 완전히 식힌다.
4. 소금기 있는 음식을 담지 않은 깨끗한 독을 씻은 후 찜에 불을 붙여 독 속을 그늘려 소독한 후 찜은 행주로 닦아내고 물기 없이 건조시킨다.
5. 독 안에 솔잎을 한 개 깔고 배와 생강을 얇게 까는 것을 반복한다. 맨 위에는 솔가지를 얹어 내용물이 뜨지 않게 한다.
6. 독 안에 식힌 설탕물을 붓는다. 설탕물은 솔잎차 재료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7. 독 입구를 공기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고 뚜껑을 닫는다. 그늘에서 15일 정도 발효시킨 후 마신다.

솔잎식혜 재료: 솔잎, 생강, 쌀밥, 설탕

- 1. 솔잎을 씻어 물기를 뺀다
2.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두고 생강은 얇게 저민다. 솔잎은 절구에 찧어 놓는다.
3. 소독된 독에 솔잎 찧은 것 밥, 생강과 설탕을 한 컵씩 까다. 쪄기 쌀은 다음 솔가지를 얹어 내용물이 뜨지 않게 한 후 식힌 물을 내용물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붓는다.
4. 거름에는 열음이 없지 않은 곳에 3일 정도 둔다. 먹을 때는 식혜를 만들 만큼을 떠서 솔에 끓인 다음 솔잎은 건져내고 먹는다.